

Yullin Newsletter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는 1993년 12월 12일, 방배2동의 작은 지하실에서 설립되어 1998년 10월에 방배동 예배당으로, 2002년 4월에는 평촌 현 예배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열린교회의 비전은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 참된 목양, 체계적인 양육과 훈련을 통해 참된 신자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열린교회의 이름은 요한계시록 3장 7절~8절에 근거한 것으로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늘을 열어 주신 교회"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Yullin Newsletter>는 8면으로 이루어졌으며, 열린교회 홈페이지의 <열린신문> 코너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열린교회는 본 신문을 매개로 외부성경공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발견하신 분은 1661-4372로 제보 바랍니다.

열린교회 신문 2021.12 vol.318



창립기념주일

고생하는 무리를 위해 세워진 교회

저는 개척하는 사람을 별로 본 일도 없고 개척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 내 꿈은 교회에 있으니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모든 조건들을 버리고 순종하리라 하는 마음밖에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밤새 하나님께서 침대 머리맡에서 기도시키셨을 때, 그 어두운 밤에 제 마음속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거룩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그 완전한 속죄의 희생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어둠 속에 살아가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무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고통을 감당할 수 없는 분량으로 제 마음속에 부어주셨습니다.

그 어두운 밤에 또렷이 떠올랐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것이 음성으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마9:36). 그 때 저는 주님의 그런 심정과는 상관없이 살았던 많은 날들, 그런 마음 없이 영혼들을 돌보면서 보냈던 많은 날들을 회개하였습니다.

남은 우리의 인생은 짧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큼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우리의 인생이 주를 위한 인생이 되기를 힘씁시다. 주님을 향한 순결한 사랑을 간직하고 우리를 통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목자 잃은 양 같이 유리하며 고생하는 영혼들이 놓여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참된 목적으로 돌아가서 주께 영광 돌릴 미래의 성도들의 합성을 꿈꾸며 우리의 땀과 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기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1998년 방배동 예배당 입당예배 설교 중에서)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성탄의 계절에 바라보는 십자가



김남준 담임목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6

본문의 배경

니고데모라는 젊은 유대인 관원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요 3:2).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전혀 다른 답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 3:3). 이는 니고데모의 영혼의 비참함을 보이고 그에게 복음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한 사건을 예로 드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 끝에 뱀의 형상을 구리로 매달아 그것을 높이 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뱀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나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뱀뱀이 높이 들렸던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 했는지, 그리고 기독교라는 종교의 대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줍니다.

사랑의 종교

첫째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서 ‘이처럼’은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한 하나님이셨으나 세 위격(位格)으로 계시면서 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넘치는 사랑이 창조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창조물 중 인간은 유일하게 하

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해하며 또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멀리 떠난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 하심으로써 하나님 없이 행복해지려는 인간의 마음을 돌이켜 당신께로 나아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런 희망 없는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그러니 이 사랑을 등지지 말고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독생자의 종교

둘째로, 기독교는 독생자의 종교입니다. 여기서 ‘독생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종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유일한 외아들이시면서 유일한 종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지고 죽기 위해서 사람이어야 했고, 무한한 인간의 죄에 대해 속죄하기 위해서 의로움이 무한하여야 했기에 하나님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돌아갈 수 없는 이 모든 비참한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을 보며 인간을 향한 가슴 저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믿음의 종교

셋째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자기를 닦고 수련함으로써 신을 찾아가는 종교와,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당신께 돌아올 수 없는 무능한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종교로 나뉩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께 돌아가기에는 무능한 존재였습니다. 그 결과 모든 비참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비참함을 벗어나기 위해 쾌락에 몰입하기도 하고 욕망을 줄이려 수련의 길로 접어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참을 극복하고 완전한 행복에 도달할 수는 없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 환희, 감격, 즐거움은 우리에게 잊혀진 단어들 되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고 형이 확정되어 죽음의 날을 기다리는 죄수들처럼 죽음이 자신의 운명인 것처럼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이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복음의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믿음은 영혼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독립적으로 살려는 성향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향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붙들며 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믿음을 도구 삼아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뱀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성탄절을 맞으며 사랑의 종교 독생자의 종교 믿음의 종교 영생의 종교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당신의 사랑 안으로 불러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 것은 언제나 하신 일이었지만 그 사랑을 깨닫고 행복해지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비참해진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디에도 구원의 길이 없음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의존의 마음이야말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영생의 종교

넷째로, 기독교는 영생의 종교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 혹은 ‘영혼의 생명’입니다. 잠시 머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육체는 영원하도록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언젠가는 죽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죽음이 인간의 끝이라면 인간은 얼마나 비참한 존재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그의 육체가 죽음으로써 끝나지 않고, 그의

영혼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믿으면 젊어진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내일 금시발복할 것이라고 교훈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것을 극복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랑을 충만하게 공급해주시는다고 가르칩니다. 부유하면서도 감사와 기쁨이 없이 원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던 사람이 오히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부와 물질적인 자원이 증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하늘의 자원이 그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히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생명이 충만할 때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맺는말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셨던 육체의 고난을 함께 바라봅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새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

☎ 담임목사 동정

- 12.5 구역강의 라이브방송
- 12.6 교구/교회학교 보고회
- 12.18 정기당회
- 12.19 청년부 섬김이 모임
- 12.24 성탄축하행사
- 12.25 성탄예배
- 12.26 정기제직회, 교회학교 부장부감 간담회
- 12.28 직원 직무교육
- 12.29 신임교역자 교육
- 12.31 송구영신예배

📻 라디오 설교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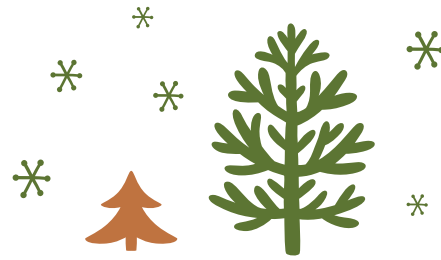
- 서울 기독교(CBS) 방송 매 주 금요일 '라디오 강단' 오후 9시 30분 (FM 98.1MHz)
- 대전 기독교방송 매 주일 '여호와와 나의 목자' 오후 4시 (FM 93.3MHz)
- 포항 기독교방송 매 주 월요일 '오늘의 양식' 오전 6시 30분 (FM 90.3MHz)
- 울산 기독교방송 매 주 목요일 '참된 삶을 향하여' 오전 6시 (FM 107.3MHz)
- 창원 기독교방송 매 주 화요일 '오직 복음으로' 오전 6시 30분 (FM 92.5MHz)
- 전북 기독교방송 매 주 월요일 '세상을 향한 한주의 시작' 오전 6시 30분 (FM 91.1MHz)

🌐 인터넷 설교방송

- 기독교방송(대전, 포항, 울산, 창원) <http://www.febc.net>

기도세미나 취재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2021 기도세미나’가 11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본관 3층 예배실에서 열렸다. 성도들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대를 맞아 보다 완화된 마음으로 교회에 직접 나와 어느 때보다 자리를 가득 채웠다. 특별히 이번 기도세미나에는 화중부 목사님(남서울교회 담임목사)이 강사로 초빙되어, 기도의 핵심 내용으로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엡 5:15-21)”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였다. 선포된 말씀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무엇을 구해야 할까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과 오순절 사건을 거쳐 성령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미 이 땅에 오셨다. 우리는 더 이상 성령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다만,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 온전히 나를 사로잡고, 우리의 삶 가장 중심의 자리에서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기도 제목 중에 핵심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모든 선한 일들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2000년 전 그 때의 일’에 그치지 않고 지금을 사는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를 생각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구해야 한다.

등불학교 취재

엄마가 지켜본 아이 등불학교



반가운 소식-

“엄마, 이번 등불학교에서 ‘낙태’랑 ‘차별금지법’도 다룰 것 같아요.” “와! 그래 잘됐네!” 5학년 막내는 엄마가 자신이 전해주는 소식을 즐거워할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표정이다. 엄마가 이런 교육을 너무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이는 잘 알고 있었다. 필자인 엄마가 이 주제들과 관련하여 노심초사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이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판결이 나왔다. 낙태한 여성 처벌조항인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과 낙태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270조 1항(의사낙태죄)이 모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입법개정 시한을 정했는데, 이미 시한은 넘겼고 현재는 관련 입법 공백 상태이다. 급진사상을 가진 단체들과 그 반대편의 국민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태아들의 생명은 현재 어떤 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하나는 ‘차별금지법’이다. 현 제21회 국회 회기가 시작되자마자 발의된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이후로 유사 관련법이 연이어 3개나 더 발의되었다. 차별금지법은 법안 자체에 여러 결함(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을 안고 있고, 특히 법안에 ‘성 정체성(性正體性)’과 ‘성적 지향(性的志向)’에 따른 차별을 금하고 있으며 남녀의 성 외에 ‘제3의 성(性)’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비판 및 반론을 금지하고 있어 법조인들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세계에 세우신 도덕질서의 핵심인 생명과 성, 나아가서 가정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지혜롭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게 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세월을 아낀다. 시간의 가치를 알고 주어진 기회를 제대로 사용한다. 세상의 흐름에 이끌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 지에 대해 귀 기울이고, 우리의 눈과 관심과 사유가 세상의 잣대에 맞춰 규격화 되도록 생각을 멈추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된다.

또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복된 영화로움이 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성도의 사귄과 교제가 어느 곳보다 아름다워질 수 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리에 서고, 높은 자가 낮은 종이 되어 섬기는, 세상과는 다른 질서를 통해 약한 자와 강한 자가 공존하는 세계가 열리게 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를 위해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회소되어 가는 시대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안 드러도 삶이 돌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무수한 요인들에 마음을 빼앗겨선 안 된다. 사모하는 만큼 성령은 충만하게 임하신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요7:37)”고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

또한 자신의 죄 뉘과 무수한 실패, 한계에도 불구하고 깨어지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아니면 피할 길이 없다는 ‘뻘뻘스러운 담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은 선물로 “성령 충만함”을 반드시 허락하신다.

마무리하며

기도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특권이라 했다. 우리가 이 귀한 선물에 대한 감사함을 잊은 채 때로는 소홀히 여기는 삶을 살아온 건 아닌지 지난 시간을 되돌아봐야 할 때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삶의 많은 부분이 영향을 받고 어느 때는 무력감마저 찾아오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기대와 변화들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진실한 성도라면 반드시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할 일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게 된다. ☆

취재: 이숙영 기자 2torok@naver.com

이렇게 재미날 수가!

강의 주제는 생명의 질서, 생명존중교육, 남녀의 차이와 염색체, 결혼, 타락한 자유를 외친 자의 안 좋은 사례, 몸과 마음 지키기... 목격하게 느껴지는 주제들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등불학교 진행은 경쾌함 그 자체였다.

두 전도사님이 주거나 받거나 성경 말씀으로 주제의 핵심을 견고히 세워주는 온라인 유튜브 교리 교실, 전문가 선생님과 교역자가 함께 진행하는 등불교실, 아이들의 이해를 확인하는 온라인 채팅 퀴즈. 마무리 활동으로 줌에서 이루어지는 팀모임에서는 아이들이 적용해야 할 점을 나누는 등 수업 전체에 역동감이 넘쳤다. 차칫 정적이고 지루할 수 있는 온라인 수업이었지만, 오히려 온라인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듯한 근사한 수업이었다. 엄마인 필자도 아이 수업이 이루어질 때,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 기대하며 귀를 쫑긋 세우곤 하였고, 수업 후 아이와 나누는 수업 후기도 쏠쏠한 재미가 있었다. 새삼 이 수업을 위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를 했을까를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이 크다.

노을공원에서

올 가을에는 서울 상암동 노을공원으로 자주 바람을 쐬러

갔다. 넓은 잔디밭과 한가롭게 흔들리는 버드나무, 색색의 옷을 입은 나무들 사이를 산책하는 즐거움 때문이었다. 사람들도 거의 없다. 그래도 가끔씩 시선을 끄는 무리가 있다. 사진을 찍는 예비 신랑신부들이다. 남자와 여자다! 그 자체로 얼마나 눈부신지 넋 놓고 구경하다가 남편의 주의(?)를 받기도 했다. 예전에는 몰랐다. 미세먼지로 고통을 겪기 전에는 공기의 소중함을 별로 느끼지 못했던 것과 같다. 양성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다는 것, 남녀를 통한 가정에서 생명이 잉태되어 태어나고 인류가 이어진다는 만고의 진리가 새삼스럽게 감격스럽다! 이 단순하지만, 너무나 소중한 도덕질서를 붕괴하려는 인본주의 사상의 간교함을 매일 시대 속에서 보고 있기 때문이리라. 등불학교를 통해 주께서 우리 후대를 진리로 훈련, 무장시키셔서 어두운 시대의 등불로 밝혀주시길 기도한다. ☆

취재: 신미숙 기자 pacific1009@naver.com

12월 주요사역

- 5일(주일), 12일(주일) 장년 교구 총회
- 12일(주일) 제28주년 창립기념주일
- 18일(토) 정기 당회
- 24일(금) 성탄 발표회
- 25일(토) 성탄절
- 26일(주일) 정기 제직회
- 31일(금) 송구영신예배

유아세례 후기

누구의 자녀인가?



이정연 장년3교구
jaylee0809@gmail.com

저희 부부는 둘 다 청년 시절 회심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모태신앙인 주변 사람들의 깊은 신앙적 지식과 가정 안에서 드러지는 자연스러운 예배를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둘이 가정을 꾸리게 되고, 아이를 기다리며 유치부 교사를 하며 만났었던 모범적인 가정들을 하나씩 기억해 내며 나름의 계획과 아기가 생긴 뒤의 가정의 모습을 그려 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출산 후 모든 것이 초보인 저는 허둥거리고 당황하고 피로에 눌려 과거에 계획했던 가정의 모습은 기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가장 심할 때 임신하고 출산하며 자연스럽게 1년 정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유아세례를 받기 위해 너무나도 오래간만에 교육에 참여하고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문답을 준비하며 계속 되새기게 되었던 것은 우리 아기 지온이가 '누구의 자녀인가'였습니다. 어렵게 가진 아이란 이유로 모든 것에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은 채 아이에게 모

든 것을 내가 해주려 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아세례를 준비하며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다시 공부하며 정말 사랑하는 지온이에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례식 날이 처음 교회에 오게 된 지온이가 신기한 얼굴을 하고 교회를 둘러보고, 찬양시간에 아빠가 움직이는 거긴 하지만 손을 움직여 울동하며 찬양하고 짜증을 내려 하면 예배시간에 조용히 해야 한다고 소곤소곤 이야기해서 달래며 드리는 우리 가족의 첫 예배당에서의 예배였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있다가 예배당에 그것도 아이와 함께 나오니 가슴이 두근거리며, 예배의 감격이 넘쳤던 지난날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세례식 후 교회홈페이지에서 목사님과 함께 찍은 사진을 지온이에게 보여주며 이제 너 목사님 설교 엄청 들어야 해, 이야기해주고 너도 이제 열린교회 다니려면 만만치 않을 거야, 웃으며 이야기하면서 지온이와 교회 안에서 함께하게 될 앞으로의 날들이 기대되었습니다.

이제는 지온이는 제가 손뼉을 치면 따라 치고 제가 회사에 갈 때 "빠이빠이~" 하면 따라서 손을 막 흔듭니다. 저의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따라하는 지온이에게 말로 알려주는 것이 아닌, 삶으로 바른 신앙을 전해줘야 함을 기억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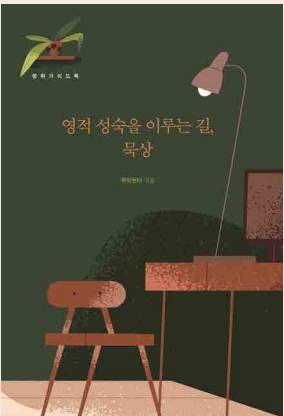
먼저, 코로나를 핑계로 나타해진 모습을 회개하고 경건 생활을 회복하고 변화된 예배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유아세례로 지온이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초심으로 돌아가고 얼마나 큰 책임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했습니다.

세례식 날 목사님께서 서약케 하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아이에게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이기를 힘쓰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신앙의 바른길을 가르치며 이 아이를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합니까?" 이 질문에 "네!"라고 크게 대답한 만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온이를 양육하겠습니다. ☆

새구역공과

사잇공과

<영적 성숙을 이루는 길, 묵상>



9월부터 공부하기 시작한 <시험에 관하여>가 이제 끝나갑니다. 다음에 하게 될 공과는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입니다. 그런데 새 공과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로 들어가기 전 짝막한 공과를 하나 진행하려고 합니다. 공과와 공과 사이에 하는 공과여서 목양센터에서는 이 공과를 <사잇공과>라고 정하였습니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영적 생활이 어떠하였는지 돌아보게 되며,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돌아보는 것이 자신의 경건생활일 것입니다.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경건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위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배의 감격이 있는 신앙생활로 회복되고자 하는 이 때,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말씀의 묵상을 통해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는 시인의 간절한 고백이 담겨 있는 시편 119편을 본문으로 하고 있는 설교들을 통해 말씀 묵상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어떠한 도움을 주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묵상을 해야 하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사잇공과는 책을 읽고 나누는 형식의 공과가 아니라 설교를 듣고 나누는 형식의 공과로 제작하였습니다. 최근 우리는 바쁘고 분주한 시대를 살면서 설교를 듣는 일에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상에 앉아 조용히 설교를 들으며 말씀을 정리하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정리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머릿속에만 맴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내려오는 묵상의 과정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마음에 들어온 말씀은 기도의 실천과 말씀을 더욱 묵상하고자 하는 욕구로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실어 나르는 묵상의 실천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5주간 짧게 진행될 사잇공과를 통해 말씀 묵상의 기쁨을 맛보며, 우리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새벽녘에 눈을 뜨게 되는 사모함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 목양센터 ☆

교회소식



임직선거

지난 11월 21일 주일, 임시공동의회가 임직자 선거를 안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시점에서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된 이번 임직자 선거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였습니다. 투표 장소는 각 장년 교구 및 청년부로 분산하여 한 장소에 모이는 인원을 최소화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투표가 끝나고 당회원 주관하에 엄정한 절차를 거쳐 개표를 진행하는 동안 토크쇼가 진행되었습니다. 담임목사님과 장로님들의 청년부 시절 이야기, 그리고 임직자로 세워진 그때의 감격 등을 나누며 개표 결과를 기다렸고 영상과 함께 담임목사님의 개표 결과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당회에 의해 추천된 장로 후보 3명(김춘경, 성경열, 이영춘), 안수집사 후보 16명(강성만, 김민경, 김영규, 김재현, 도현호, 박용진, 박창일, 백승태, 백인봉, 안성철, 이계상, 이석용, 이정태, 조석봉, 홍성주, 황선범), 시무권사 후보 26명(강은숙, 강은향, 김남순, 김명정, 김수미, 김은자, 나근주, 박정화, 백은정, 신정은, 신현자, 안지영, 원미영, 유병예, 유재명, 유지연, 윤명실, 이경옥, 이경자B, 장경숙, 정경미, 최금례, 편재숙, 한순암, 홍순옥, 황성순) 모두 투표 참여 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각 직분의 후보들이 되었습니다. 결과 발표 후 각 직분 후보자들은 선서를 통해 임직을 받는 날까지 성실하게 교육과 훈련에 임할 것을 다짐했고 교회를 위한 종으로 세워 주심에 기도로 감사드렸습니다.

당선된 피택자들은 이제 끝이 아닌 시작의 길에 서 있습니다. 6개월에 걸쳐 피택 임직자 교육이 강도 높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피택자들이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영적 성장을 이루어 앞으로 교회의 소중한 리더로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격려 바랍니다.

기도사역 헌신자 모집

- 신청 부분 : 수요섬김기도/ 릴레이기도/ 강단기도
- 신청 기간 : 12월 19일(주일) 까지
- 신청 방법 : 신청서(본관 로비) 및 온라인 신청(홈페이지/구글 폼 이용)

장년 교구 총회

- 일시 : 12월 5일(주일) 3부 예배 후(오후 1시 40분)
- 장년 1, 4교구
- 일시 : 12월 12일(주일) 3부 예배 후(오후 1시 40분)
- 장년 2, 3, 5, 6교구

사임인사

아쉬움 가운데에서의 소망



오우진

교회를 떠나며 감사의 제목들이 떠오릅니다.

첫째, 목회자로서의 회심입니다. 제 영혼의 회심은 20대 청년의 시절, 내수동교회 대학부에서 경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낮고 천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선포되는 말씀과 성령의 큰 역사로 어둠에서 빛으로 저를 인도해주셨습니다. 회심 이후 저는 이 작은 자의 일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리고 싶었고, 이후 신학교에 입학하여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주신 은혜가 컸기에 참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늦은 밤 시간을 넘겨 새벽 시간까지 집에 돌아갈 줄 몰랐고, 이른 아침에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늘 목회의 한계를 느꼈고 마치 뿌연 안개 속에서 그저 허둥대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신대원에서 김남준 목사님의 특강을 듣게 되었고, 이후 열린교회 인턴십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의 경험은 그간 모호했던 목회의 초점을 매우 분명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신학의 중요성과 목회사역에의 실제적인 적용, 그리고 목회 사역의 본질은 영혼의 회심과 그 회심의 보존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목회자로서 저를 회심케 한 것과 같았습니다.

둘째, 사역의 열매들입니다. 사역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한없이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주셨습니다. 교회학교 고등부와, 장년

교구, 청년부, 신학센터와 CRTS 사역. 열린교회의 이곳저곳에서 두루 사역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부에서 하나님께서는 목회의 본질을 깨닫는 데 그치게 하지 않으시고 그 열매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인생의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아이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안에서 회심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배운 신학 내용들이 지금 이 시대에서도 유효하게 실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에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장년교구와 청년부의 사역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각각 교구와 부서를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장년교구와 청년부 모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진심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귀한 지체들이 많았기에 함께 이 일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신학센터에서의 사역을 통해 신학세미나가 보다 더 널리 알려지게 되고 신학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는 일에 기여할 수 있었고, CRTS 사역을 통해 어려운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많은 학생들을 양성해 나갈 수 있는 일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성도들의 많은 사랑과 기도입니다. 처음 열린교회에 오게 되었던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성도들께 참 많은 사랑을 받았고, 참 많은 기도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저의 삶은 언제나 나그네와 같았습니다. 일찍이 부모님의 곁을 떠나 터를 잡을 겨를이 없이 지속적으로 떠나는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그네에게는 새로이 머무는 곳에 오랜 벗이 없고 모든 것이 늘 새로울 뿐입니다. 언제나 그런 삶을 살아왔던 저에게 성도들이 베풀어주신 사랑은 헤아릴 수 없는 크기였습니다. 따뜻한 인사와 격려, 늘 응원해주시는 마음들, 무엇보다 저를 위해 기도해주신 눈물들이 있었습니다. 사역을 해나갈 때마다 성도들의 기도가 이 사역을 돕고 있음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지금까지 잘 감당해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또 다시 나그네가 되어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으니 자신의 계획을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 없고, 언제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갈 뿐입니다. 그러나 떠나는 아쉬움 가운데에도 저에게 소망이 있음은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더 확장시켜 주시고, 더 많은 사역의 열매를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은혜를 베풀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이후의 삶에서도 더 풍성한 은혜를 예비해주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늘 기도의 시간 안에서 열린교회와 성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열린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김기훈

10월 31일(주일)부로 5년의 열린교회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여전히 목양의 관계 안에 있는 영혼들과 섬겨야 할 교회의 사역들을 보면, 사임을 결정한 것이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열린교회를 소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제 자신도,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한 길 위에 있음을 확신하며 유학을 준비하게 됩니다. 부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사임 이후 미국 유학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학교는 텍사스 주에 있는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두 곳을 목표로 하고 있고, 조직신학의 한 분야를 공부할 계획입니다. 2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 박사과정까지도 수학하고자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학업을 수학하는 계획만큼이나 유학에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민목회의 현장을 보는 것입니다. 늘 제 마음 속에는 이민자들의 영혼에 빛진 마음이 있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 그들을 직접 만나고, 앞으로 그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진학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이 있는 이민교회로 인도함을 받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후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들을 담임하여 목회하고자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있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떠납니다. 아내와 두 딸(9살, 2살) 모두, 새

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언어, 인종, 교육, 물질 등 새롭게 맞이하는 모든 환경이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족은 우리 안에 행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중에도 용기가 생깁니다. 미국에 가서도 이러한 용기가 늘 충만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 나니 겪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 자신의 자발적인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저희의 상황과 환경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직접 만들어 가시기까지 하십니다. 그 과정을 지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며, 바로 그 곳에서 살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로 인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행하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 가정 되길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잠시 눈을 돌려 제 인생을 둘러보니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 마음과 기도에 부끄럽지 않게 공부하고, 유리하고 방향하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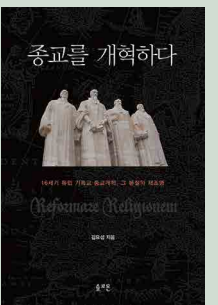
지난 5년의 시간 동안 열린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어서 제게는 무한한 영광이었으며, 부족한 제 자신이 한층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담임목사님

과 당회 장로님들, 특별히 장년 1교구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으나 늘 주 안에서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이어나가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

11월 추천도서

종교를 개혁하다 김요섭 저/솔로몬

이 책은 16세기 유럽에서 발생한 "종교개혁"에 대한 연구이다.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종교개혁의 본래 목적과 내용상 특징을 살펴서 이 역사적 사건의 본질을 규명하는 데 있다. 물론 특정 종교 개혁자의 활동과 사상, 각 지역에서 종교개혁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들, 또는 특별한 쟁점을 둘러싼 신학적 논쟁 역시 이 책의 관심사에 포함된다. 그러나 인물, 사건, 사상에 대한 관심에 앞서 이 모든일들이 발발하게 된 종교개혁이라는 역사적 사건 또는 운동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이 책은 16세기 유럽 종교개혁의 본질을 기독교 신앙의 회복의 추구였다고 정의한다.(인터넷 교보문고)



경주자

세 친구



신하경 유치부 담당 전도사
rivershk@kakao.com

◆◆◆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만나 신앙생활을 하며 함께 자란 두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세 친구는 모이면 하나님과 신앙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하였는데, 그때 많이 나누었던 주제 중 하나는 장래희망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고기를 먹기 위해 모였습니다. 불판을 앞에 두고 앉아 서로의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는 게 친구에게 어울릴지 한 마디씩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한 끝에 한 친구는 의사, 한 친구는 선교사, 한 친구는 정치가를 하면 좋겠다는 결론을 내었고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잘 커서 각자의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 이 나라를 올바르게 세우는 큰 포부를 품었습니다.

◆◆◆ 시간이 흘러 우리는 30대가 되었습니다. 세 친구는 그때, 그 불판 앞에서의 큰 포부처럼 이 나라를 올바르게 세우는 의사, 선교사, 정치가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이루어진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커서 각자의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자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세 친구 모두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의 삶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아내고 있습니다.

◆◆◆ 두 친구는 제가 전도사가 된 걸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라 애쓴다고, 대단하다고 항상 말해줍니다. 때때로 신앙적 고민이 있을 때면 저에게 연락해 고민을 털어놓고 저의 생각을 귀담아 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러곤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이야기해줘서 고맙다고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두 친구는 저를 통해 많은 걸 느끼고 배운다고 말해줍니다. 과분할 정도로 저를 소중하게 생각해줍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친구들이 제게 배운 것은 제가 두 친구에게 배운 것에 비하면 정말 작고 가벼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두 친구가 보여준 삶을 통해 항상 배우고 배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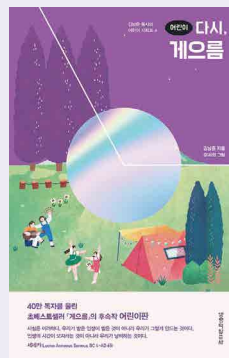
◆◆◆ 미국에 자리 잡은 한 친구가 몇 년 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입니다. 세 친구가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여 밤늦게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두런두런하는 소리에 잠이 깰했습니다. 방 밖에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귀기울여보니, 두 친구가 아침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소리였습니다. 웃음이 절로 났습니다. 그 이유는 전도사가 되어서 예배드리는데 자고 있었던 제 모습이 염치가 없어서였고 두 번째는 그 친구가 너무나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 사실 친구는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학교에서 만나면 “학교기도실 먼저 가자!” 교회 근처에서 놀 때면 “교회 가서 찬양 부르자!” 그 친구와 만나면 하는 일이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교회에 가서 친구가 치는 피아노 반주에 맞춰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도, 대학생 때도 그러더니 미국에 간 후에도 계속해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나 봅니다. 그 아침에 친구를 깨워 아침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걸 보면 말입니다. 그렇게 매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하는 친구는 작은 선물 하나, 편지 하나를 남기고 다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있었습니다. ‘복음을 나누는 삶의 가치를 안고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전도사가 되길 바라.’

◆◆◆ 다른 한 친구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당시 교회학교 교사로서 담임하고 있었던 아이들과 함께 있는 모습입니다. 친구는 아이들에게 항상 지는 교사였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시간도 물질도 아끼지 않았습다. 교회 일정이 다 끝난 후에도 중학생 아이들을 데리고 피피티 화면을 보여주며 복음에 대해 열심히 가르치던 친구의 모습은 늘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과 찬양 인도 하나를 하더라도 찬양가사의 의미를 하나하나 열정적으로 설명하던 친구의 모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목양이 쉽지 않은 학생을 만났을 때도 불평 한 번 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족한 자신을 탓했습니다. 그런 친구를 볼 때면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친구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라고 고백하며 아이들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자신이 담임했던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더욱 선명하게 가르쳐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자신을 반성합니다. 그렇게 눈물 어린 고백을 하는 친구는 여전히 지금도 교사의 자리에서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 사실...우리는 가까운 만큼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빠지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서로를 사랑했던 시간보다 경쟁하고 은근히 시샘하는 시간이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들을 생각할 때면 “참, 우리가 그뻬 왜 그랬을까. 서로 섬겨주고 사랑하기도 부족한 시간이었는데...”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존중하고 사랑해야하는지를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세 친구로 함께하며 사랑의 훈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 세 친구.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서로가 같은 일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걸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주셨던 사랑의 관계를 기억하고 훈련받은 사랑 안에서 다른 이들과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고자 애쓰고 있을 것이고 그렇게 사랑하는 과정 중에 서로를 기억할 것을, 미처 그 시절에 베풀지 못했던 기도를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을 압니다. ☆



나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숙제도 매일 꾸준히 해.
그러니 나는 게으름을 피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무언가 빠져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야 하는데,
정작 그것이 빠져있다.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를 나만을 위해 산다.
핸드폰 할 시간은 있는데
성경을 읽고 기도할 시간은 없다.
그러니 나는 게으름을 핀다.
하나님은 날 보며 어떡할까?
마음이 아프시고 속상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살펴주시는데
나는 매일매일 게으름을 핀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를 낭비하지 않고 살아갈 거야.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거야.
그리고 나를 만나주시겠지.

(유기혜, 초6, 열린교회)

제가 제일 머릿속에 들어왔던 것은 “밥술 옆에서 굶었어요”랑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그 두 가지였어요. 게으른 사람은 옆에 필요한 게 다 준비돼 있는데도 자기가 게으른 줄도 모르고 하기 귀찮아서 밥도 안 하고 있다는 게 정말 게으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축구에서 경기를 할 때 우리 팀 친구들이 누워 있는 걸 볼 때, 정말 게으르면 아무것도 같이 하기가 어렵고, 계속 다른 사람한테 지적을 받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에서 느낀 점은 정말 제대로 열심히 게으름을 무찌를 수 있도록 잘 방해해 두지 않으면 쉽게 무너지는구나, 였어요. 게으름이라는 미사일이 계속 나에게 발사됐을 때 순식간에 박살나지 않으려면 매일 게으름을 무찌를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고 항상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때 또 인상 깊었던 것은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면 너무 하나님이 해주실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게으름 부릴 시간이 없다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마음 먹는 계기가 되었어요.

게으름 책을 읽으면서 학교에 가니 다른 친구들은 이상하게 죽이고 자살하고 무섭고 이상한 책을 읽는데 세상에는 다른 좋은 책들도 많은데 왜 꼭 저렇게 이상한 책만 읽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드 지우개로 보드마카를 써놓은 거를 지우는 건 게으름이 아니라고 쳐요. 그런데 보드 지우개로 펜글씨를 지운다고 생각해 봐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세상에는 배울 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왜 저런 이상한 책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걸로 시간을 채우는 게 아니고 나쁜 것으로 시간을 채우는 것은 게으름이래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세상을 열심히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생각이 되는 게 좋은 책이잖아요. 저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많은 것들을 배워나가는 것들로 채우기로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해서 내 모든 것을 펼칠 수 있는 책을 읽으려고 노력할래요. (원익담, 초1, 열린교회)

독후감

<어린이 다시, 게으름> 독후감 대회 수상작 모음

지난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 다시, 게으름>에 대한 독후감대회가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있었습니다. 생명의말씀사 주관으로 이루어진 이번 독후감대회에는 전국에서 총 168명이 응모하였고 25명에게 상패와 문화상품권이 주어졌습니다. 모든 글이 어린이들 시각에서 본서를 바라보며 적용하는 알찬 내용들로 채워져 있었으나 열린신문 지면상 8편만 선택하여 소개합니다. (글형식, 연령, 교회들이 골고루 소개되는데 중점을 두고 선택했습니다.) -편집부

모든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것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나는 지금 믿음의 확신이 없는 상태인데 혹시 이대로 죽게 돼서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니 너무 무섭고 걱정이 되어 오늘이라는 시간, 지금이라는 선물을 아껴쓰고 의미 있게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주어졌는지는 그 누구도 모를 테니까, 오직 시간을 만드신 분만 아실 테니까, 그래서 나는 차근차근 나의 시간을 떠올려 보았다.

내 하루를 적어보니 학교 갔다가 공부하고 또 놀고 저녁 먹고 잤다. 많은 시간을 내가 좋아하는 그림그리기와 만들기 보냈다. 거의 내 하루의 일정이다. 거의 내 위주로 내가 시간의 주인이 되어 보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인데... 나는 10분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있었다. 나는 교회 다니고 입으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되는 줄 알았다. 정말 너무 부끄럽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의 진짜 자녀답게 내 시간을 통해 증명해보고 싶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지금부터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학교생활도 공부시간도 집중해서 최선을 다 해볼 것이고 놀 때도 시간을 정해서 놀 것이다. 그리고 매일 잠들기 전 하루의 시간을 돌아보고 점수를 매겨 낭비하지 않는 습관을 길러볼 것이다. (문은유, 초 5, 하늘꿈교회)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는 락이예요. 게으름 책을 읽고 게으름이 질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질병에 걸리면 불안한데 게으르면 불안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사실 불평도 많고 짜증도 엄마한테 많이 내는 아이였어요. 해야 할 일을 매일 미루고 하지 않으려고만 했어요. 그런데 책을 읽고 제가 했던 행동이 질병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뒹굴거리지 않아야 하는데 그렇게 한사람은 천국에 가서 부끄럽다고 했어요.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뒹굴거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예요. 하나님 저도 뒹굴거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지런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안녕히 계세요. 락이 올림(이락, 초2, 열린교회)

게으른 사람은 서까래를 갈아주지 않아서 지붕이 점점 썩어 무너져요. 그러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이 되어요. 저는 제 마음에 있는 서까래를 부지런히 갈고 닦아줄 거예요. 매일 아침 암송시간과 큐티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 놓을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과 소꿉놀이를 할 때 하나님께 없는 손가락과 칼을 양보하며 말씀을 실천할 거예요. 그리고 동생들에게 치우라고 명령만 하지 않고 어떻게 치우는지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는 언니, 누나가 되도록 기도할 거

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정말 소중한 것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시간을 자기마음대로 낭비하는 것은 죄예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으로 하나님이 놀러오고 싶은 마음의 집을 만들 거예요. 내 마음의 집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집을 많이 많이 만들면 좋겠어요. (윤로희, 미취학, 울산시민교회)

<다시, 게으름>
다람쥐가 도토리를 줍지 않는다.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지 않는다.
개(개)구리도 폴짝폴짝 뛰지 않는다.
으음... 게으름을 고칠 방법이 없을까?
름(음) 음악이 다시 흐르게 되면 멈춘 자연도 되돌아오겠지?
(정지민, 미취학, 열린교회)

하나님 저는 이 책을 읽고 마음의 다짐을 했어요. 저에게 큰 다짐과 기대감을 주셔서 감사해요. 먼저 하나님께 죄를 지어 회개는 하지만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점점 회개가 귀찮아지는 마음들이 커졌는데 다시 그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게 해주세요. 이 책에 여러 이름과 주인공들의 사건들이 저에게 도움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재능 많고 게으른 사람보다 부족해도 충성스러운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시다고 하셨는데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서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어요. 게으름은 저에겐 한숨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숨이란 모든 것이 불만스러운 것인데 더 감사하고 게을러지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을 알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우게 되었어요. 이제 내 중심에서 귀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아 내 몸에서 변화가 있게 해주세요. (권하임, 초 5, 대흥교회)

나는 바쁜 4학년이다. 학교 숙제, 피아노, 영어 강의 등등등 해야 할 것이 많다. 그래서 늘 불평이 가득했다. 아 '너무 바빠요' 라고 늘 엄마에게 하소연했다. 하루는 아빠가 슬쩍 책을 하나 건네셨다. '게으름' 이라는 책이었다. 의문이 들었다. 나는 게으르지 않고 바쁘게 살아가는데 왜 이 책을 읽으라고 주셨지? 라고 말이다. 하지만 책을 읽으니 알게 되었다. 뚜렷한 삶의 목표를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게으름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무역상을 하는 남편은 아내에게 부탁을 받는다. 가장 소중한 선물을 사오라는 부탁 말이다. 남편은 고민 끝에 가난한 시절 때 먹었던 밀을 사온다. 아내는 값어치를 깨닫지 못하고 마구 화를 낸다. 그러다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아내는 결국 떠돌아다니다, 밀밭을 보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다. 이 아내처럼 게으른 삶이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삶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허영으로 가득한 삶,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곰곰이 생각

갈등,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글·그림: 나동훈
gomgom2@designzip.co.kr

갈등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디로도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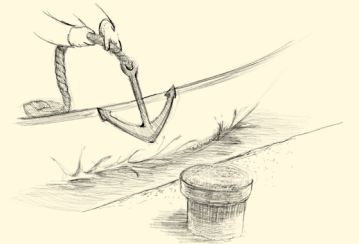


방향이 없으니 발이 떨어지지 않네!

그래서 두 길 앞에서 멈춥니다. 그는 압니다. 이런 갈등이 신앙인 줄 압니다.

갈등하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누구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닳을 내려? 말어? 아니면 저쪽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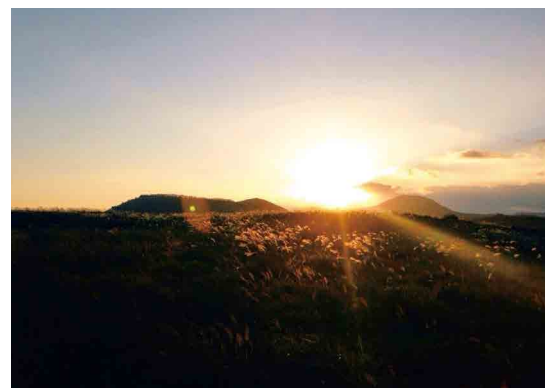
그래서 마음을 내려 놓지 못합니다. 그는 모릅니다. 의지하는 사람의 평안을 모릅니다.

가야할 길을 가지 못하고, 의지할 곳에 내리지도 못한다는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시험에 대하여> 5장을 읽으며

포토에세이

사진: 김범무(장년6교구)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잠언 21장 3절

삶이야말로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여전히 바쁘지만, 나는 오늘도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를 알고 살아가고 싶다. (김승준, 초4, 대전새로남교회)



황성순 장년교구
hwangss@naver.com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회심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춘기를 지날 즈음 같은 반 친구의 갑작스런 죽음을 보며 인생의 허무를 느꼈습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게 살 수 있는가? 하늘과 땅과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세상학문에서 말하는 빅뱅이론은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나 탄생되었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그 점의 기원은 어디서 온 것인지 그것도 완전한 해답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 교회는 다녔지만 기복신앙으로 가득해서 내 영혼은 한없이 고민하며 방황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신앙으로 살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환상은 결혼과 함께 깨졌습니다. 남편은 청년 때와는 달리 주일에 교회 가기도 싫어했고, 저한테까지도 적당히 신앙생활하기를 강요했습니다. 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몰라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 당시 제 신앙은 교회만 다니면 다 믿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회심 없는 신앙은 그럴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된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에서 값싼 구원과 인간 중심의 기복신앙이 만연했던 그 시기엔 무지 속에 죄 가운데의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과 맞지 않는 신앙생활 때문에 많이 싸우며 결국에는 이혼밖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때는 IMF 오기 전이었었는데 남편은 장사를 한다고 식당을 개업했습니다. 그런데 IMF가 터지면서 1년도 안 되어서 사업은 망하게 되었고, 살고 있는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제 몸도 많이 쇠약해져 심한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향한 미움과 원망도 극에 달했습니다. 남편과 영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일이 꼬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어찌해야 하는지, 무엇이 원인인지 모르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당시 다니던 교회에서는 무조건 기도만 하라고 하였는데 지성과 영혼의 압축 가운데 있는 제게 무조건 기도만 하라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치유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고 나는 "하나님 내 마음과 영혼은 병 들었습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두 번을 계속해서 금식하며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나를 새롭게 만져가셨습니다. 모든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있음을 보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고집, 교만, 아집들을 보면서 남편은 그냥 이런 나를 고치게 하는 도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죄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참된 신자로 살 수 없기에 이런 환경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싶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모든 문제가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분노했는데, 죄악 된 나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 겨워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죄로 짓눌렸던 내 영혼은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의 자유와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제야 어릴 때부터 고민했던 인생의 의미와 행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로 물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행복의 시작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작일 뿐이었고 이제는 '참된 말씀'에 대해 알고 가고 싶어졌습니다. 기존에 다니던 교회에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설교말씀을 들었지만 채워지지 않는 진리를 향한 목마름은 더해만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세미나, 성경통독 등 진리를 제대로 알 수만 있다면 어느 자리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면 내 갈증을 채워줄 말씀이 아니었고, 내 영혼은 계속해서 진리를 찾기에 갈급했습니다.

어느 날 서점에서 김남준 목사님의 <청증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자>를 읽게 되었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로 인터넷으로 들어가 김남준 목사님 설교말씀을 듣는 중 순간 "바로 이거다! 내가 그렇게 찾고 찾았던 말씀이 바로 이거다!"라고 생각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로 그 주일 열린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너무 갈급한 마음으로 찾아 헤메다 왔기에 매주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열린서점에서 설교시리즈 테이프를 많이 구입해서 녹취하며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녹취하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울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특히 <죄와 은혜의 지배>설교 시리즈는 참된 신자가 살아야 할, 성화의 삶에 꼭 필요한 교과서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살 수 없었던 원인은 죄 때문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 죄를 어떻게 죽이고 깨뜨려야 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날마다 죄 죽임을 통해 어떻게 신자가 거룩하고 순결하게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신자는 결국 참된 진리 안에 거할 때에만 더 이상 방황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기도, 은사, 치유를 추구하면 계속해서 방황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진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니 이전에 알지 못하던 영혼의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진리 가운데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주변을 살펴보니 나를 옥죄어 오던 환경의 문제도 하나씩 해결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조금씩 변화되어 지금은 주일예배도 함께 참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믿음으로 싸워나가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젠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참된 신자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김남준
- 시무장로 김남근 김기현 박정갑 금성철 박찬동 김원호 황철호 김대영 박기준 김용연
- 은퇴장로 임두순 이대환 김희철
- 부목사 김성구 박재현 김동기 이성도 류요한 박철웅 최성기 명성인 권경철 김태영
- 협동목사 정창욱 김성진
- 전도사 곽해정 조희숙 정경아 강성경 최선미 김현희 김미영 박숙현 이지연 신하경 양승희 김수민 이월순 정명원 홍명철
- 교육전도사 김민성 김민정 김진산 이두호 최영광

파송선교사

- A국: 4units, B국: 1unit, C국: 1unit
- 말레이시아: 양연식 & 전희선
- 에스와티니: 황아론 & 양진영 / 박현철 & 박상유
- 인도네시아: 신동진 & 정지현
- 국내 디아스포라: 정진학 & 손원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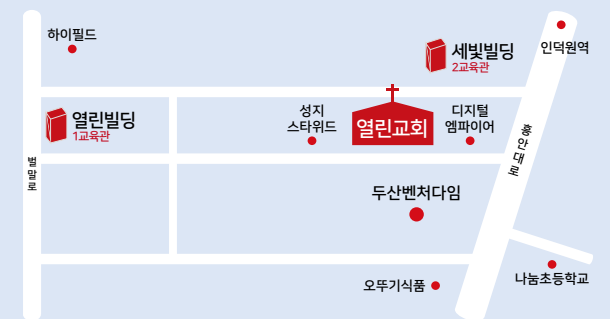
예배시간 안내

구분	시간
주일오전예배 *1부	오전 8시 (본관 3층 예배실)
	오전 10시 (본관 3층 예배실)
	오후 12시 (본관 3층 예배실)
	오후 2시 (본관 3층 예배실)
*주일오후예배	오후 4시 10분 (본관 3층 예배실)
교회학교	영아부 오전 10시 / 12시 (별관 1층 교육실2)
	유아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2층 교육실1)
	유치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3층 교육실2)
	유년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2층 교육실3)
	초등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2층 교육실4)
	소년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1층 교육실2)
	중등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1층 교육실1)
	고등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4층 교육실3)
	사랑부 오전 10시 (별관 1층 교육실1)
새벽기도 *1부	오전 5시 (별관 1층 교육실2)
	오전 6시 (본관 3층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본관 3층 예배실)
수요성경기도	오전 10시 30분 (본관 1층)
금요기도	오후 8시 (교구별 지정장소)
*사랑부 토요교실	오전 10시 (별관 1층 교육실2)
*소망교실	주일 오후 1시 (세빛빌딩 4층 소망부실)
중국인예배 中国人礼拜	오전 11시 30분 (세빛빌딩 5층 중국실) / 上午 11时 30分 (世光大厦 5层 中文室)

(* 코로나19 감염위험의 최소화를 위해 시행하지 않고 있는 모임)

찾아오시는 길

열린교회는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4번출구 800m, 평촌역 3번출구 700m 거리에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열린교회에 오시려면

- 서울/과천 777, 441, 502, 540
- 안양 8, 8-1 군포 540, 8
- 성남 103(인) 구로 51(인) 수원 777
- * (인) : 인덕원에서 하차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4번 출구 앞에서 버스를 이용, 평촌동주민센터에서 하차하여 진행방향으로 100m 앞으로 오신 후 우측 골목으로 들어오시면 열린교회가 있습니다.



에피그람, 한 문장 /

당신은 우주 속에 티끌같은 존재다. 그러나 우주를 생각할 수 있기에 작은 존재가 아니다.